

AI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 대형 유통업체들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산 닭고기 할인 판매에 나서

2월 13일 이마트 본점에서 닭·오리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이 열렸다.



e-mart가 함께합니다.

양계농가 여러분 힘내세요!

닭·오리 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

14. 02. 13. 10:30

120 2014.02

e-mart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와 업계를 위해 가금관련단체와 유통업체가 손을 잡았다.

한국계육협회는 AI 여파로 닭고기 소비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마트와 함께 「닭·오리 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한국계육협회를 비롯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도종닭협회 등 가금관련단체와 이마트가 공동 기획하여 국내산 신선 닭고기·오리고기를 기존 판매 가격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2월 13일(목)부터 26일(수)까지 14일간 전국 이마트 143개 매장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마진 없는 판매가 진행된다.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2월 13일(목) 이마트 성수점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최규성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장), 이원욱 국회의원, 가금관련단체장, 계육업체대표, 이마트 대표이사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닭·오리 농가 돕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빈과 유치원생들의 닭고기 시식과 함께 이동필 장관의 닭고기 안전성 구호 제창, 고객에게 치킨 증정 행사 등을 진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들과 가금업계에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닭·오리 농가 돕기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AI에 대한 국민 불안 및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금육에 대한 소비를 정상화시켜 닭·오리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이동필 장관과 최규성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



2월 13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한 소비촉진 행사



롯데마트에서 닭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가 진행됐다.



롯데마트에서 진행한 소비촉진 행사에서 본회 정병학 회장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닭고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마트 본점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금류 소비촉진 캠페인을 시작한 농협중앙회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가금산물로 만든 요리 전시와 시식행사, 배식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유통은 하나로클럽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닭고기, 오리고기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소비 붐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이외에도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시식 행사를 열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소비촉진행사, 농협은행 닭·오리고기 사은품 제공, 제12회 오리데이 행사 등 전방위적인 소비촉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에서는 2월 11일 가금관련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와 공동으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공식행사를 갖고 105개 전국매장을 통해 16일 동안 가금관련제품(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50% 할인판매에 들어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행사기간중 'AI 바로 알기' 포스터, POP 고지, 시식행사 진행 등 소비자 인식 전환에 노력하고, 가금류 30만 마리 물량을 긴급 매입해 오는 2월 26일까지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해 행사상품 매입 금액을 조기 지급하고 행사 매출의 일부를 양계, 오리업계에 기부하는 등 업계의 회생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가금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 업계 회생을 위해 협조해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AI가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관련업계의 도우미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양계농가 돕기의 일환으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면서 적체되어 있는 가금산물 소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